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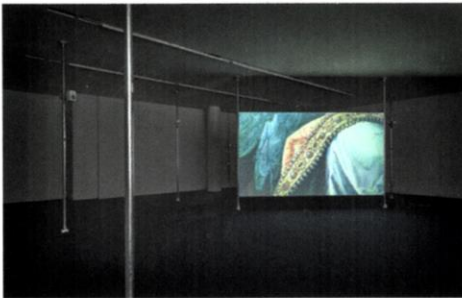
PREVIEW

December 2022 | 편집부

Page 1 of 1

남화연

11.18~2023.1.29 아뜰리에 에르메스



비가역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희미한 흔적으로 남은 존재들에 대한 기록의 편린을 면밀히 관찰하고 상상력을 더해 섬세하게 재구축하면서 현재화하는 작업을 해온 작가의 개인전. 10년 가까이 몰두했던 무용가 최승희 아카이브 관련 작업을 끝낸 후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전시 <가브리엘>은 4점의 신작으로 구성되어 시간을 재생하거나 기억을 재구축하려는 인위적인 노력 대신 시간의 흐름 한가운데서 다가올 순간들을 고요하게 응시할 것을 제안한다. 과거의 자료로부터 촉발된 현재의 사건을 만드는 것에 집중했던 지난 작업의 경향에 비해 미래라는 시제에 대한 생각, 도래할 것에 대한 생각들이 작업의 시작점에서 주요하게 작용한 이번 전시에서 작가의 지속적인 관심사인 시간은 물리적 실체를 띠며 현재 시점에 되살아나 보다 더 생생하게 체현되기보다는,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거대한 수용물이 속에 함몰하고 있다.

원성원

11.18~2023.1.29 뮤지엄 한미



작가는 직접 촬영한 수천 장의 사진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오리고 병치하여 주변에 있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한 장의 프레임 안에 직조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열등감과 그것을 다루는 태도로 주제로 작업한 신작 5점을 선보인다. 전시명 '모두의 빙점'은 작가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타인과 충돌하면서 발현되는 상태를 빙점에 은유해 붙인 것이다. 빙점이 물이 얼거나 얼음이 녹는 상반된 성향의 교차점을 의미하듯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상반된 것들 간의 어긋남과 어우러짐에 주목하여 인간 내면의 여러 성격이 갖는 부조화스러운 조화로우음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어째서 성공한 사람들조차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까?' 이 의문에서 파고든 열등감의 다양한 면모는 근작과 반대로 얼음으로 덮인 겨울 풍경으로 묘사된다.

모던 디자인:

생활, 산업, 외교하는 미술로

11.23~2023.3.26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해방 이후 6.25전쟁을 거치고 근대화, 산업화를 통한 국가 재건 시기에 활동했던 산업미술가의 아카이브를 매개로 디자인 분야의 성립과 전개 과정에서 포착된 시대의 단면들을 살펴본다.

달 없는 밤

11.24~2023.2.12 경기도미술관



2022년의 '경기작가집중조영'. 동시대에 대한 예리한 시선을 버리며 묵묵히 자신만의 속도로 작품세계를 확장 사진, 조각, 설치 등의 다양한 매체로 활발하게 활동해온 기술기 김시하 천대광이 선정되어 작업을 선보인다.

이기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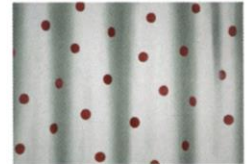
11.17~12.31 국제갤러리



회화와 설치를 넘나들며 작업하는 작가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향수와 동시에 덧없는 것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킨다. 무의식과 현실, 환상 사이에서 묘한 균형을 이루는 작가의 신작 50여 점을 선보인다.

설원기

11.24~12.23 이유진갤러리



40여 년간 작품활동을 해온 작가는 개념과 내러티브가 아닌 화면의 조형성 그 자체의 순수함에 집중하였다. 작가가 추구하는 자율적인 조형원리 속에서 모순적인 조화를 이루어낸 드로잉과 회화 작업 40여 점을 선보인다.